

변월주의 불교정화와 태고종

김광식*

• 목 차 •

I. 서언

II. 변월주의 불교정화관

III. 변월주의 새로운 불교관과 태고종 정체성

IV. 결어

* 동국대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0집 (2018년 12월), pp.165-191.

한글요약

본 고찰은 근대 고승인 백용성의 법제자인 변월주의 불교정화에 대한 글이다. 지금까지 변월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연구할 분야가 많다. 그래서 본 고찰에서는 그의 불교정화관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그가 소속된 태고종의 성격, 진로와 연관이 된다. 때문에 그의 불교정화관과 태고종의 불교정화에 대한 입장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대상이 많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고찰에서는 다음의 측면을 유의하였다. 첫째, 변월주는 백용성 제자이었는데, 그는 백용성의 정화사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이다. 둘째, 변월주는 정화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이다. 셋째, 변월주는 그가 해인사에 있을 때에 시작된 불교정화운동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이다. 넷째, 변월주는 그가 속한 태고종단에서 불교정화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태고종단에서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 변월주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황성기(동국대 교수)의 불교정화관과의 비교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고찰이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태고종단의 불교정화, 불교혁신 등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길 바란다. 그래서 불교정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변월주, 불교정화운동, 백용성, 해인사, 태고종, 황성기

I. 서언

근대 고승인 백용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2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¹⁾ 그와 같은 연구 중심에는 백용성의 유훈을 계승하는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에서 백용성의 학술적인 조명을 담당하도록 설립한 대각사상연구원이 있다. 그래서 현재 『대각사상』이 29집까지 발간되었고, 2016년에는 『백용성대종사 총서』(전20권)가 발간되어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의 주체, 성과에는 결과적으로 조계종의 성격이 개재되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백용성의 정체성, 백용성 사상의 계승 주체 등을 고려하면 그 산물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백용성의 비문(한용운 찬, 해인사 ; 오세창 찬, 범어사)을 보면 백용성의 제자들은 40여명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7명에 불과하다.²⁾ 따라서 추후의 백용성의 계승 문제의 탐구에는 보다 다양한 제자들을, 조계종 이외에 연고가 있는 대상자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고찰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나온 백용성의 은법제자인 邊月周(1909~1975)에 대한 연구이다. 봉암 변월주에 대한 연구는 최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³⁾ 필자도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예전에는 백용성이 설립하고 운영하였던 혁신불교 및 독립운동의 근거처인 華果院(함양)에서 수행을 하였던 대상자라는 관점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다.⁴⁾

-
- 1) 김광식, 「참고문헌」, 『백용성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7.
 - 2) 그 대상자는 동산, 고암, 자운, 동헌, 동암, 봉암, 동광 등이다. 백용성의 입적한 이후, 백용성을 위패상좌로 하여 출가한 소천과 운암에 대한 논고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 3) 『대각사상』 26(2016)에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특집 논문 6건이 수록되어 있다.
 - 4) 김광식, 『華果院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 - 이선파와 변봉암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6, 대각사상연구원, 2017.; 김광식, 「화과원의 역사와 성격」, 『대각사상』 28, 대각사상연구원, 2017.

그러나 이번 고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반영되었다. 첫째는 변월주는 백용성으로부터 傳法과 傳戒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는 백용성으로부터 적지 않은 기대를 받았음을 짐작케 하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변월주 그는 백용성 사상을 계승하려고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둘째는 1950년대에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을 조계종에서는 정화운동, 태고종에서는 분규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월주는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갖고 집필한 이 지면에서는 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그래서 본 고찰에서는 우선 변월주의 불교정화관, 그리고 변월주가 인식한 태고종 노선에 대한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특히 변월주의 ‘새로운 불교’에 대한 성격은 그 실례이다. 이 연구가 변월주, 백용성 제자, 백용성 계승 등의 새로운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진한 측면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재해석을 통해 보완하겠거니와 제방선학의 비판을 기다린다.

II. 변월주의 불교정화관

봉암 변월주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한 직후 백양사에서 출가하였다. 그래서 그는 백양사에서 사미계, 비구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백용성으로부터 傳法과 傳戒를 받았다. 우선 전법은 1936년 2월, 대각교당에서 받았다. 그때 변월주의 속납은 28세 범랍 7세에 불과하였다. 함께 받은 대상자는 동현, 도암, 뇌묵, 봉암 등 4인이다. 변월주는 그로부터 2년 후인 1938년 4월 8일, 해인사에서 백용성에게 단독으로 傳戒證(小戒, 大戒)을 받았다.⁵⁾ ‘佛戒律淵源’이라는 제목의 그 전계증은 매우 귀중한

5) 해인사에서 직접, 백용성에게 받았는지 혹은 의식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료이다.⁶⁾ 변월주는 백용성에게서 전계증을 받은 직후인 1938년 4월 20일 백용성의 출가 사찰인 해인사로 승적을 옮겼다. 이때부터 그는 은사, 법사를 백용성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은 백용성과의 관계가 특별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백용성 연구를 하던 필자는 연구 초창기에는 변월주라는 대상자를 조계종 승려들로부터 전해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일 여건이 전혀 없었다. 특히 용성문도의 승려들에게서도 변월주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변월주의 문손을⁷⁾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변월주가 해인사 가야총림 시절의 강사이었고, 불교정화운동⁸⁾ 당시 비구측에 해인사 관련 서류를 비교적 온전하게 넘겨주고 해인사에서 나왔음을 접하게 되었다.⁹⁾ 그리고 해인사에서 나온 그는 해인대학(마산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승려 출신으로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다.

이런 전후 사정에서 필자는 백용성의 법제자이었던 변월주가 어떤 연유로 대처측의 인물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였다. 그리고 그는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전개된 불교정화(분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변월주의 문손인 마성은 최근 논고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즉 변월주는 일체의 종단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¹⁰⁾ 용성의 직계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6) 전계증은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신발굴자료), pp.455-463에 수록되어 있다.

7) 그 대상자는 가산, 마성이다.

8) 김광식, 「불교 '淨化'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김광식,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9) 그 당시 해인사를 접수한 문정영은 그를 “그때에 변월주가 해인사를 맡아 있었는데 대처승들은 도망가면서 장부, 서류들을 이불 밑에 감춰 놓고 간 것을 우리가 그를 다 들추어냈지요.”라고 증언했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7, p.74. 이 사실에 대해 마성은 봉암은 1955년 8월 26일 비구측이 해인사를 접수할 때, 해인사의 직인과 장부 등 서류 일체를 인계했다고 서술했다. 마성,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 2014, p.136.

10) 위의 마성 고찰, p.139.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불교 감찰원(세칭 대처측)의 부원장을 1961년 6월에 맡았다고 봉암문도회가 작성한 봉암 이력서에

측에 가담한 것은 종조문제(換父易祖 ; 태고 보우국사에서 보조 지눌로 때문이라고¹¹⁾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마성의 주장은 수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필자가 보건대 그는 대처측의 인사로 활동했고, 그를 그 자신도 당연하게 인식하였다. 왜 그랬을까? 요컨대 그는 세속의 인연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정화운동이 발발할 그 당시에 처자식이 있었다. 그가 결혼한 연유는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대승사상(보살사상)의 차원에서 나온 것인가도 궁금하다. 그런데 그가 이혼하였다는 증언이 있는바¹²⁾ 그 전후사정을 파악해야¹³⁾ 한다. 백용성의 정화사상과 연관이 있는 불교정화운동을 추진한 이른바 비구승단에 가담하지 않고, 비구측의 정화운동을 비판하고, 비구측의 반대 노선을 간 이른바 대처측(태고종)에 가담한 연유, 백용성의 유혼을 계승하기 위해 1969년에 출범한 대각회에 참여하지 않은¹⁴⁾ 이유 등은 추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그의 정체성, 불교사상 등을 설명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태고종(대처측)과 연관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지를 풀어가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백용성이 입적한(1940) 직후부터 해방공간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백용성의 노선을 갔다고 이해된다. 즉 1941년 3월에는 청정 비구승단 및 계을 수호의 뜻이 있는 遺敎法會에 참여했고,¹⁵⁾ 1942년에도

나온다.

11) 마성, 「봉암의 태고종조론에 대하여」, 『대각사상』 26, 2016, p.34.

12) 김순석 논고, 『대각사상』 26, p.157. 이는 변월주의 딸(변주이)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13) 변월주의 제적등본 등 1차 자료에 의한 파악이 필요하다.

14) 마성의 증언(2018.10.19)에 의하면 대각회측 인사가 대광사(진해)로 변월주를 찾아왔지만, 면담 자체를 냉정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15) 봉암문도회가 봉암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위해 작성한 봉암의 ‘독립유공자 평생 이력서’에는 1941년 3월, 만주 간도의 농장 관리장으로 있다가, 귀국하였다고 나온다. 이 농장은 연변 명월촌에 위치한, 백용성이 설립한 농장을 말한다. 이 이력서에는 1938년에 농장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 1939년 1월에 관리소장의 소임을 보다가 백용성이 입적을 하자 1941년 3월에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봉암의

화과원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고, 선학원 중무원의 서무이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1944년에는 해인사의 산청포교사, 1946년 6월에는 함안의 원효암 주지 발령을 받았고,¹⁶⁾ 1946년 10월 해인사에 가야총림이 출범하자¹⁷⁾ 해인사 교무로 임명되었다.¹⁸⁾ 그런데 그는 1943~1944년 무렵, 세속의 인연을 가졌다.¹⁹⁾ 그래서 그는 불교정화운동이 발발하자 대처측 인사로 지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처승이 갖고 있었던 비판적인 행실은²⁰⁾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는 1954년 11월 25일에 결성된 대처측 대책위원회에서 선임되었다.²¹⁾ 그리고 1962년 1월 비구, 대처 양측이 회담의 결과로 나온 불교재건 비상총회의 대처측 의원으로 피선되었다.²²⁾ 그러나 그는 비구 대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정화운동 및 갈등의 현장에 적극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는 해인대 교수의 근무에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²³⁾

그렇다면 변월주는 1954년부터 1962년까지, 혹은 태고종이 등장한 1970년까지 비구 대처 양측이 전개한 불교정화운동, 분규, 갈등 등에 대

연변 농장과의 연관성은 더욱 구체적인 문헌, 증언에 의해 객관적으로 재서술되어야 한다.

16) 『불교신보』 3호(1946.7), p.3, 「총무원 주지 辭命」.

17) 김광식, 「가야총림의 설립과 운영」, 『조계종 총림의 역사와 문화』, 조계종출판사, 2009, pp.72-73.

18) 마성,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 2014, pp.135-136. 봉암의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에는 그 임명 일자를 1947년 1월 5일이라고 썼다.

19) 그는 흥덕회와 결혼을 하여, 딸 2명을 두었다. 첫째 딸은 1945년생이고, 둘째 딸(변주이)은 1950년생이다.

20) 대처승들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사찰 주변에서 가정을 꾸렸고, 가정 유지를 위한 사찰의 직위 및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21) 민도광, 『한국불교승단정화사』, 1995, p.149.

22) 김광식, 「불교재건위원회의 개요와 성격」,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518.

23) 위의 봉암의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에는 봉암이 1951년 3월에 해인대학 강사로 취임하였고, 1961년 4월에는 마산대학 전임강사가 되었고, 그리고 1968년 10월에 마산대학의 교수사 되었다고 나온다. 이에 대한 것도 문헌 증거에 의해서 재서술되어야 한다.

한 입장은 어떠하였을까?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대처측의 입장에서 서 있었을 것이다.²⁴⁾ 여기에서 그의 입장을 확실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이 자료를 유의해서 살펴보면 그는 정화운동을 ‘분규’, ‘법란’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宗團의 法亂만은 아직까지 瀕死狀態에서 蘇生の 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서 派生되는 여러 가지 亡宗의 風波는 설 새 없어도 그 毒菌을 除去치 못한채 방치하고 있으니 一大 遺恨이 아닐 수 없다...(중략)...

이런 前鑑에서 向者에 一部에서 主唱한 第一의 淨化는 淨化가 아니라 其實 爭禍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敎團佛敎는 어디까지나 六和生活에 입각하여 敎勢擴充은 그 敎團에서 明眼宗師가 輩出케 하여 그와 같은 後繼者를 養性하고 他에 法施를 힘쓰는 것을 淨化인줄 알았더니 法을 이기는 暴擧로써 막상 執權을 해 놓고 十餘年 동안 法施 敎權에는 有意하지 않고 物質의 外財 掌握勸에만 血眼이 되어 宗風은 땅에 떨어져도 아무런 處方도 講究하지 않고 雪上加霜으로 또 다시 內紛의 內紛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²⁵⁾

세상의 복전이 되어야 할 불교단체가 자의건 타의건 간에 十여년 동안의 분규로 세인의 빈축을 사고²⁶⁾

위와 기록 내용에서 변월주의 불교정화관을 살필 수 있다. 즉 그는 당시 비구측이 전개한 정화는 정화가 아니라 法亂, 爭禍, 法을 이기는 暴擧, 분규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그도 불교 내부의 모순, 폐단, 비법을 제거

24) 김광식, 『아! 청담』, 화남, 2004, pp.341-342에는 그가 1957년 무렵, 해인사 입구 사하촌에 살면서 대처승들이 해인사로 입주하려는 움직임에 가담하였다가, 비구측으로부터 강압을 받은 내용이 전한다. 이 사실이 그를 반영한다.

25) 변월주, 「우리 宗團의 反省의 해로」, 『불교계』 17호(1968.12), p.12.

26) 변월주, 「內部 充實과 社會奉仕로」, 『불교』 5호(1970.10), p.19.

하여 불교 본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淨化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아래의 글에서 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이에 第二淨化라는 堡壘를 設定하여 새해의 指標를 삼고져 한다. …(중략)…

이에는 老婆鬻의 대수술이 아니고서는 殭屍 그대로 腐敗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감히 提唱하노니 남을 淨化하려 하기에 앞서 至近한 自己淨化를 于先하기 바란다. 是非戰으로 把定하거나 寺院爭奪로 方行하지 말고 저 菩提場會 大覺金仙의 모습을 銘記하여야 한다. 널리 一切衆生을 보시고 자기와 같다는 歎詞가 있지 아니한가. 이와 같이 自己淨化를 철두철미하고 보면 그 삶을 모두들 우리러 볼 것이요 一級 二級寺住持의 爭權이 있겠는가. 새해부터는 法亂의 책임자는 모르미 覺醒하여 一盲이 衆盲을 引導하는 妄學를 止揚하고 我執을 버리는 無我園에서 會同하여 第二淨化에 總進軍하기 바란다.

우리 法亂이 不二의 法을 二法으로 보는 錯覺에서 由因되었고 淨化 方法에서는 自己淨化 草昧에 失意하였음으로 一派가 일면 萬波가 따르듯이 只今에 計算한다면 公私間 財法の 被害는 차마 形言치 못할 것이다. 기유년의 새해 設計를 作成한다면 새해를 「우리 宗團 反省 해」로 定하고 우리가 다 같이 社會淨化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²⁷⁾

이렇듯이 변월주는 ‘自己淨化’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비록 그가 연고가 있는 대처승 종단(한국불교 조계종) 내부의 주장이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범란(정화)의 발생 원인을 ‘不二의 法을 二法으로 보았던’ 착각에서 기인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不二의 法과 二法이 지칭하는 사상, 내용은 무엇인가? 그는 단언하여 말할 수 없다. 불교정화의 관점에서 필자가 과감하게 해석을 하면 비구승과 대처승이 공존 화합을 하여 一佛弟子로 살아야 하건만, 수좌승을 배척하고 대처승 중심의 교단 및 사찰 운영에 대한

27) 변월주, 「우리 宗團의 反省의 해로」, 『불교계』 17호(1968.12), p.12.

모순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정화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즉 그는 ‘자기 정화의 草昧에 失意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하여 교단의 모든 대상에 과급되어 경제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 진단했다. 이는 교단, 승단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초기에 해소하는, 자기 정화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이런 성찰이 요청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自己淨化’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기 정화라는 취지에서 수행하고, 불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불교정화(법란)로 야기된 모든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자기 정화에 철저함이 사회정화에 이바지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변월주 그는 정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였다. 아니 오히려 찬동의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정화를 종단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제창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종단(佛敎 曹溪宗)은 대처측 종단이었다. 그는 1968년 12월에 나온 불교 조계종(세칭 대처측) 기관지인 『불교계』 종단 소개 면에 ‘慶南 宗務院長’이라고 나온다.

여기에서 변월주가 의도하는 불교조계종의 ‘자기 정화’에 깔려 있는 관점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우선 그의 주장은 대처승(교화승단)을 수용, 인정하는 관점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건대 그는 세속 인연을 갖고 있었던 대상자라는 성격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가 속한 불교 조계종은 대처측의 성격임을 물론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의 주장은 이를테면 비구승과 대처승(교화승, 보살승)이 공존해야 한다는 관점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대처승도 승려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월주의 관점은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은 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대처측의 인사 즉 대처측 불교재건위원이었으며,²⁸⁾ 불교 조계종의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²⁹⁾ 1962년 불교재건위원회

28) 위의 「불교재건위원회의 개요와 성격」, p.507.

대처측 위원을 역임한 황성기가 있다. 그는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였던 학승이었다.³⁰⁾ 변월주와 황성기는 일제 말기 심원사(철원) 강원에서 인연을 맺었던 연고가 있었다. 변월주도 해인대 교수를 하였기에 이들은 서로 간에 동질적 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황성기는 비구승 중심의 정화를 비판하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가 속한 불교 조계종의 노선 및 운영에도 만족하지 않고 대승불교적인 노선을 주장하였던 중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1963년 7월 25일, 그의 소신과 새로운 정화를 추진하는 단체인 불교사상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오늘의 사찰중심(寺刹中心) 불교를 교리중심(敎理中心) 불교로, 승려본위(僧侶本位) 불교를 신앙본위(信仰本位) 불교로, 형식주의(形式主義) 불교를 구제주의(救濟主義) 불교로 지양(止揚)하고 봉사(奉仕 - 布施)와 인내(忍耐 - 忍辱)와 노력(努力 - 精進)으로써 불교를 현대화하고,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광제중생(廣濟衆生)의 불교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자 지난해 7월 25일, 발족한 우리 불교사상연구회는 같은 해인 12월 24일, 수원시 지부 결성을 비롯해서³¹⁾

위의 내용에 나오듯이 황성기는 교리·신앙·구제주의 불교로써 불교를 현대화하고,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중생구제의 불교 본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불교사상연구회를³²⁾ 출범시켰다. 그런데 이 불교사상연구회와 변월주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황성기가 그 연구회의 지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마산에서 가서 변월주를 만났던 내용이 있다.

29) 『불교계』 17호(1968.12), 「불교조계종 소개」.

30) 하춘생, 「황성기 : 보살행 없는 불교는 공리공론」, 『불교평론』 60, 2012. ; 장진영, 「황성기 : 한국불교 재건 염원한 대승사상 실천가」, 『불교평론』 68, 2016.

31) 황성기, 『불교사상연구회 서산·고성지부 결성 참관기』, 『황성기박사 불교문집 : 불교사상의 본질과 한국불교의 제문제』, 보림사, 1989, p.241. 이 기고문은 불교사상연구회의 기관지인 『불교생활』 5호(1965.4)에 수록되었다.

32) 이 연구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요청된다.

우리는 7시 30분쯤 마산에 내려 곧장 변월주(邊月周) 교수를 찾아 갔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변교수와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강원도 철원 보개산(寶蓋山) 심원사(深源寺) 강당에서였다. 당시 나는 화엄경십지품(華嚴經十地品)을 보고 있었고, 변교수는 이미 대교과(大教科)를 졸업하고 강(講)을 준비차 와 있을 때였다. 그 온후인자(溫厚仁慈)한 성품, 명민치밀(明敏緻密)한 두뇌와 그리고 착실온건(着實穩健)한 학구적 태도는 당시 이미 동료 선배들의 촉망이 두터웠거니와 그 후 변교수는 줄곧 해인사(海印寺) 불교전문강원 강사(講師)와 마산대학(馬山大學)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직 후진양성에 묵묵히 성과 열을 다 해오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비록 동문수학(東門修學)을 한 동창생이라고 하지만 본시 연령에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변교수의 고매(高邁)한 인격과 그 중학시절의 항일애국(抗日愛國)운동에 못지 않게 출가 후의 애종애교(愛宗愛教)하는 강인한 신심을 항상 나는 존경해 오는 터이므로 보통 동창 이상의 교분(交分)을 가지고 있는 터이라 이번에 꼭 만나려는 의도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장래와 새로운 불교운동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고 싶어서였다.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미 예기했던 듯 변교수는 신발을 거꾸로 끌고 달려 나와 언제나 다름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두 손을 잡는다. 나는 방으로 안내되어 마침 차려 놓은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불교사상연구회 사업을 소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변교수는 이내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으로 이곳에 지부 결성을 보자고 결론을 맺었다.³³⁾

황성기가 쓴 위의 글에는 변월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 우선 심원사 강원 시절³⁴⁾인연, 변월주에 대한 강학 실력, 변월주의 성품 및 평판, 변월주와 해인사 관련성 등이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황성기와 변월주가 불교사상연구회의 마산지부를 결성

33) 황성기, 『불교사상연구회 서산·고성지부 결성 참관기』, pp.255-256.

34) 『불교시보』 56호(1940.3), p.7, 「축 불교시보 발전 광고」에 심원사 강원 강사 명단에 中講으로 변월주가 나온다.

하자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다.³⁵⁾ 이로써 변월주의 정화사상, 불교사상은 불교사상연구회의 노선 및 성격과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변월주는 불교정화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 노선은 비구승과 대처승이 공존하는 교단의 지향이었다. 그리고 대승불교, 보살불교의 이념하에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라는 성격이 투철한 행보였다.

III. 변월주의 새로운 불교관과 태고종 정체성

변월주는 태고종과 관련이 많았다. 이는 전술한 내용에서도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불교조계종은 1970년, 태고종으로 승계되었다. 1970년 5월 대처축의 태고종이 창종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월주는 불교 조계종에 소속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태고종의 출범을 적극 찬성하였다. 그는 태고종이 자기 정화를 통해, 종단 이념을 정비하여 대승불교 노선을 참답게 가기를 바랐다. 변월주의 태고종에 대한 소신, 확신은 태고종 종통에 대한 확고한 신심,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범맥의식을 철저하게 인식하였다. 이런 전제하에서 나온 그의 태고종에 대한 관점, 바람을 살펴 보겠다.

그동안 太古宗 出帆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念劫圓融의 見地에서 힘써 위의 宗旨를 傳布하고 本淨의 작용으로 다 같이 大同合心하여 各自의 책임을 완수한다면 危機說의 재난은 해소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宗徒들은 손에 손에 法燈을 밝혀 들고 自己의 힘을 충족시킨 뒤에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서 能彼の 宗徒는 盲引盲의 愚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體 練成을 時時로 개최하여

35) 실제로 지부 조직, 활동까지 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過去 식으로 特定人의 강의만으로 능사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예전 講院에서 하는 論問講식으로 서로 같고 닦아서 實務에 나아감으로써 이상적인 실효를 견우리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러한 시점에서 太古宗의 進軍이 절대로 긴요하며 이 새로운 불교에 대한 기대는 人天이 다 같이 찬미하여 지난 날의 치욕을 말끔하게 씻어 가시어 줄 것이다.³⁶⁾

그러나 다행히 당무자들의 노고로 인하여 새로이 太古宗을 등록하여 푸짐한 희망을 걸고 참신한 종풍을 진작하고 있으니 불원한 장애에 서광이 비치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중략)… 가장 인상 깊은 것은 5월 8일의 신종 등록이라 하겠다.

국가의 근대화 도약과 함께 종풍의 선양을 기원하는 바이다.³⁷⁾

우리 태고종도 이러한 레일 위에서 거년에 출항하였으니 금년부터는 활무대에 올라서서 보무당당하게 거창한 사자후를 웨칠 때가 되었다.³⁸⁾

그런데 변월주가 태고종에 바램은 위의 내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단순한 창종 차원이 아니라 대승불교, 정화불교를 구현하는 노선의 실천이었다. 그는 태고종에서 그의 소신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태고종 출범 초기에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그를 유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창종 구성 ; 계승자 강조

그런데 이 세 가지(필자 주 : 종주, 계승자, 도량)가 다 요긴하지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승자의 여하에 달렸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법성을 지키는 후계자가 없으면 폐종 또는 절종이 되었던 까

36) 변월주, 「한국의 새로운 불교로서 宗徒들은 宗祖의 宗旨아래서 大同心하라」, 『불교』 2호(1970.7), p.17.

37) 변월주, 「歲暮의 回顧談」, 『불교』 7호(1970.12), p.23.

38) 변월주, 「새해 아침에 바라는 것」, 『불교』 8호(1971.1), p.29.

답이다.³⁹⁾

▷ 교육 ; 도제양성

이렇게 방황하고 전전하는 법도들을 설득하여 포섭하고 우선 대동단결 함이 사업지표의 하나라고 믿는다. 그 까닭은 중지를 모으고 찬란한 조명탄을 발굴하여 과거의 패인을 규명하면 참신한 공안이 정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본영의 참모들은 항상 천시와 지리를 이용하고 적재적소에 등용할 편대 작성의 운주를 강구한다면 단연코 승전고를 올리는 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 일의 일단으로는 중지를 이론적으로 선양할 교육자를 뽑아서 발심한 도제들을 양성하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누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이 없는 장군은 아무리 용감하여도 결국 무면 강도의 신세가 되고마는 것이며, 지장의 휘하에는 슬기로운 군사가 따르고 용장의 부하는 용병이 쫓기 마련이다. 이리하여 명실상부한 정통불교의 종단 위신을 확립하기 바라는 바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비교적 한가한 철을 골라서 지방교구 단위로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연례행사를 마련함이 좋을 것이다.⁴⁰⁾

▷ 수행 ; 계정혜 삼학

이러한 前鑑을 깊이 보살피서 새로운 불교가 살아날 길은 戒 · 定 · 慧의 三學으로 자체 수련을 하여 法身を 찾고 永體와 같은 攝持와 錦花와 같은 行持로 報身を 莊嚴할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연후에 大衆을 상대하여 가두 설교를 하거나 懺摩祈福을 하여 機類를 따라 接應하는 化身事業을 하는 곳에 불교의 活路가 발견되라고 생각한다.⁴¹⁾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변월주가 태고종단에 요청하였던 핵심적인 실체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우선 첫째, 불법과 보우국사의 범맥을 이어갈 주

39) 변월주, 「内部 充實과 社會奉仕로」, 『불교』 5호(1970.10), p.18.

40) 변월주, 「새해 아침에 바라는 것」, 『불교』 8호(1971.1), pp.29~30.

41) 변월주, 「새로운 佛教의 活路」, 『불교』 9호(1971.2), p.12.

체인 계승자(승려)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둘째, 태고종의 종지를 이해하고 출가한 도제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문제이다. 그는 태고종 구성원들의 대동단결과 인재의 적재적소의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신입 도제와 중견승려들의 교육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것이 태고종 발전의 기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그는 태고종 구성원들은 예전의 시행착오를 지적하였다. 그 전제하에 종도들이 반성하면서 이제부터의 수행은 戒·定·慧의 三學의 수행이라고 단정적,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럴 때에 태고종은 종단의 活路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태고종의 戒行에 대하여 너무나 소외하는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자신도 과오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였다. 그는 태고종의 계율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어색한 변명이지만 대처측은 대개가 결단성 없는 유약한 심정에서 업력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것”으로 보았다.⁴²⁾ 그러면서 그는 태고종의 종단의 자력 및 교권의 확충에도 계행의 유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처럼 태고종 인사가 종단 노선을 검토함에 있어 이처럼 삼학 수행을 강조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변월주는 종단 계승자로서의 주체인 승려, 승려교육, 삼학수행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 노선을 종단 차원에서 실행을 하면서 철저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기존 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불교’라고 주장하였다. 변월주가 주장한 ‘새로운 불교’는 추후에 더욱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그것이 변월주 불교사상의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것만 주장한다.

이제부터는 변월주가 주장한 ‘새로운 불교’가 태고종 관점에서 어떤 성격, 위상을 갖는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처측, 태고종은 불교정화를 반대, 비판하였다고만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대처측의 승려들도 불교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였다. 일부 대처측

42) 위의 자료, p.13.

인사는 대처측이 종단을 관장하였을 때의 문제점, 지나침도 인정하였다. 요컨대 대처측, 태고종 계열에서도 불교정화운동이 발발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 불교정화는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었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승려 자격 문제에서 비구측과 조화, 타결을 하지 못하였다. 즉 대처측은 대처승은 보살승, 교화승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그 논리를 인정받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 ‘유시(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대처측 인사의 ‘불교정화’에 대한 언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언설에서 대처측, 태고종측의 논리, 입장, 정화관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54년 8월부터 비구측(선학원)이 불교정화운동을 본격화 하자, 대처측(기존 총무원)은 그해 6월에 종헌을 개정하여 修行僧團과 敎化僧團의 이원적 존속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유시의 본질은 ‘寺刹淨化’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찰정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僧風 肅正’도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 개진하였다. 이런 입장은 1995년 1월에 열린 종회에서 당시 송만암 종정의 훈시와 총무원장인 임석진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⁴³⁾ 이런 구도에서 1954년 10~11월에는 사찰 주지와 총무원 간부로 있었던 대처승은 퇴진하고 ‘獨身僧’으로 교체되었다. 이 무렵 작성된 대처측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찰정화 실천방안」(1954. 10)에 의하면 이런 성격이 잘 나와 있다. 그 문건은 ① 寺刹淨化案 ② 僧風淨化案이라는 큰 틀로 구성되어 있다. ① 寺刹淨化案은 사찰의 분류와 지정, 가람의 수호, 도량의 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僧風淨化案은 승려의 분류와 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처측도 정화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이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승려의

43) 송만암은 “이대통령각하의 사찰정화에 대한 담화와 유시는 …(중략)… 금번 회동은 오로지 사찰정화, 승풍숙정, 교화망 강화를 위함인즉”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석진은 “이대통령 각하의 담화를 받드는 사찰정화, 승풍 숙정 실천에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반성 내용이다. 그 내용을 제시하겠다.

三界的 大師시오 四生の 慈父되시난 釋迦牟尼 부처님을 師로 받들고 佛法僧 三寶를 信仰의 대상으로 하여 信奉하난 우리 僧侶가 世人의 「大師, 法師, 스님」 尊稱을 받게 된 것은 下化衆生の 師表되난 同時에 救世度人의 大任을 우리 자신이 갖이게 된 것인데 오늘날 우리 僧侶 각자가 자신의 갓인바 地位와 任務를 망각하고 莫行莫食이 基極에 달하여 世人의 존경을 떠나서 빈척과 조롱을 받게 되난 동시에 같은 僧團에서도 僧字를 떼고 「護法衆」 又난 出寺歸俗의 비난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三寶 전에 百懺千懺하야도 贖罪의 길이 없을 것이 많일가? 우리는 이에 反省하야 자신의 前過前非를 悔改함과 동시에 猛省 大悟하야 僧侶로서의 再發心 再出發을 자진 促求하자.44)

이와 같이 대처측도 대처측 승려들의 莫行莫食을 참회, 반성하였다. 그래서 그들도 참회, 발심, 새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고쳐야 할 승풍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는 削髮染衣, 禁酒斷煙, 食肉蓄妾의 戒, 僧侶로서의 修行 등을 거론하였다. 요컨대 대처측 인사들도 자신들의 과오, 문제점 등을 인정하고 정화의 필요성은 수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처측은 자신들의 승려 자격의 유지, 종단 내에서 교화승단이라는 정체성 등을 존속, 유지되길 원하였다. 그렇지만 그에 대립적인 비구측 인사들은 대처승은 절대 승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구측, 대처측의 淨化觀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 1956년 2월 9일, 청량사(서울, 청량리)에서 비구측과 대처측의 대표격인 승려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한 문건의 제목은 「寺刹淨化 問題에 對한 李靑潭側과 懇談記」이다.

이청담 師 ; 종단의 정화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고 其

44) 『태고종 자료집』 1, pp.27-28. 1954년도, 제14회 중앙총회결.

전에 부터서 비구, 대처 할 것 없이 전국 승려가 다 모여 앉기만 하면 구석 구석에서 淨化를 해야 한다고 논의해 오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총무원장 임석진 스님과 김상호스님의 주장하시는 修行僧과 敎化僧으로만 구분하여 종단을 운영한다면 말로만 淨化이지 실제로는 정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전례를 들어 말씀하자면 해인사의 叢林 하나가 제대로 못되고 기타에도 首座가 공부할 만한 곳이 없이 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三寶寺刹과 기타 중요 사찰 몇 개 寺와 총무원 각도 총무원은 비구승 측에서 가지고 잔여 사찰 전부를 종전 帶妻僧들에게 住持 署理의 자격으로 임기제에 의한 임명을 하여 광범위한 敎徒制를 실시할 예정으로서 이것은 革命的 수단으로써 遂行하는 것입니다.

중요 사찰은 수도원을 창설하여 완전한 비구승 만 명 정도 양성할 예정이며 역경사업 포교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과거와 같은 기도불교를 고쳐서 사업을 토대로 한 교리 선전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우리 불교 신도란 자들은 모다 利己의 심리로 사찰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박대륜 師 ; 무슨 종교 신도든지 다 이기적입니다. 신도는 고사하고 승려 자신들도 이기적이 아닌가? 누가 利他的 보살행을 하는 僧이 있는가?

권상로 師 ; 청담 和尚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한 理想論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願하고 있는 바이며 비구 만명이 아니라 십만명 이상이라도 좋으나 오늘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그러한 希望과 理想論을 청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宗團의 將來를 위하여 긴급히 善策을 발견하려 모인 것이니 현실적으로 금일 이 단계에서 제시할 조건만 말씀하시라. 안홍덕 師 ; 정화란 것은 불교정화가 아니라 사찰정화인데 사찰정화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청담 師 ;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안홍덕 師 ; 사찰정화는 기필코 되어야 하겠는데 淨化는 사찰정화, 승려정화, 교도정화, 도제양성, 포교 역경 등 각 방면에 亘하여 계획적으로 순서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찰의 영도권은 반드시 대처승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단에서 비구 만 명 이상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

리가 和음을 한 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도대체 사찰 접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접수란 것은 대개 군사적 용어로 점거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듣기만 하여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술어인데 대처한 승려는 전부 축출하고 사찰을 전부 점거하여야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菩薩僧의 서원과 古祖師의 계율을 생명과 같이 받들겠다는 비구들이 종전부터 있는 승려들을 배제하고 새로 만 명 이상 승려를 양성 云云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상론을 필요 없으니 현실에 적합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⁴⁵⁾

위의 간담회 대화에서 나오듯이 비구측과 대처측은 모두 정화의 필요성, 당위성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홍덕의 발언 즉, “사찰정화는 기필코 되어야 하겠는데 淨化는 사찰정화, 승려정화, 교도정화, 도제양성, 포교 역경 등 각 방면에 亘하여 계획적으로 순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에서 그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대처측은 현실 인정, 대처승 존재의 인정, 정화 방법의 비판이라는 구도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구측은 대처승 배제라는 대원칙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이청담 師 ; 향후 如何히 하면 종단이 잘 되겠습니까?

권상로 師 ; 革命的 수단으로써 寺刹淨化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니 彼此間 이전 過失은 必殺해 없애고 종단을 위한 방법만 논의합시다.

이청담 師 ; 대처승은 제외하는 원칙하에 논의합시다.

이효봉 師 ; 전일부터 안홍덕師를 통하여 말하였거니와 종조문제와 대처승은 기왕에 결정한 문제이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상로 師 ; 이청담師 말씀대로 한다면 불교 분규는 점점 ○冷戰으로 드러가는듯 한대 帶妻僧에 대한 僧字를 떼고 붓치고 하는 문제와 宗祖

45) 『태고종 자료집』 2, pp.50-54. 자료번호 42, 1956년 문서번호 58, 「정화에 관한 쌍방 간담기」.

問題는 아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客年 8월 12일 이전으로 피차 還元하기로 합시다. 만약 不然이면 대통령 각하의 유시대로 종전 승려는 다 소속 사찰에 들어가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봉 師 ; 그 말씀은 諭示의 해석 錯誤이며 比丘된 연후에 승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화응 師 ; 선학원측 주장대로 하는 사찰 정화 방법은 淨化가 아니라 亡化할려는 방법입니다. 서로 대립으로 피하고 和同하면 도제양성도 포교도 역경사업도 할 수 있으나 화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할 것입니다. 이청담 사 ; 작년 8월 12일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不可하니 대처승은 제외하고 양측 독신승끼리⁴⁶⁾

이와 같이 비구측(청담, 효봉)은 대처승 배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비구승이 종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를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대처측(권상로, 이화응)은 기존 승려(대처승 포함)의 권한 존속을 전제로 대처승이 관권에 의해 공식적으로 배제된 기점인 8월 12일(승려대회) 이전으로 환원을 주장하였다. 어쨌든 양측의 대립의 초점은 대처승 인정의 여부에 있었다.

하여간 대처측도 1950년대 중반에는 정화라는 기본 구도, 흐름,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처측의 논리 핵심은 대처승의 인정 여부이었다. 정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화의 기획은 일부 노정되었지만, 정화의 관점 및 좌표 등에 대한 입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관점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이런 배경하에서 변월주의 정화관, 새로운 불교라는 개념은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대처측 논리는 비구승에 대한 비판에 함몰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처측의 자생적인 이념, 논리가 부재하였다. 그러나 변월주의 논리는 독자성, 자생성이 있었다.

이에 태고종도는 과거의 악몽을 깨끗이 불식하고 새로운 불교의 가치

46) 위의 자료, pp.56-57.

아래에 중단합하여 檀徒의 財施에는 法施로써 보수하고 국가의 시책에는 密密히 협조하여 大乘思想으로써 淨化하여 장엄국토에 普請하여야 할 것이다.⁴⁷⁾

지금까지 중단 분쟁 등의 구실로 남을 탓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변명은 지양하고 오직 자신 당처에서 일체를 발명하고 싶은 것이다.⁴⁸⁾

위와 같이 그의 이념은 대승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리인 ‘새로운 불교’를 떳떳하게 구현하자고 제언, 당부하였다. 이러한 변월주 논리에는 독자적인 이념,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즉 ‘새로운 佛敎’라는 그의 논리는 그 자신의 논리이면서도 태고종의 정체성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불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각자가 모질게 反省하여 正路를 결택하고 한데 뭉쳐서 비벼 나가면 驪珠와 같은 佛道를 發見하여 十餘年 전에 질식한 佛法이 다시 소생하리라고 믿는다.⁴⁹⁾

이상과 같이 새로운 불교의 활로가 自心佛을 향하여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있는 힘을 배양하여 他에 미루어 줌으로써 法輪을 常轉하는 데에 있다 하겠다.⁵⁰⁾

즉 그는 자신의 주장, 논리를 ‘正路’라고 자신하였다. 그는 태고종도들이 자신의 논리인 새로운 불교를 수용하여 불국토 건설을 이루는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자연 태고종은 신도, 대중, 민중, 국가로

47) 변월주, 「한국의 새로운 불교로서 宗徒들은 宗祖의 宗旨아래서 大同合心하라」, 『불교』 2호(1970.7), p.17.

48) 변월주, 「새해 첫 아침에 바라는 것」, 『불교』 8호(1971.1), p.30.

49) 변월주, 「새로운 佛敎의 活路」, 『불교』 9호(1971.2), p.14.

50) 위와 같음.

부터 신임을 받게 되어 불교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V. 결어

이상으로 변월주의 불교정화관, 그리고 그에 관련하여 그가 태고종에게 제시한 정화방안과 태고종 종단의 좌표 및 노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 장의 맺는말에서는 본 고찰에서 드러난 성격, 추후에 궁리할 초점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변월주는 그의 은법사인 백용성의 전법, 전계를 받은 수행자이었다. 이로써 그는 백용성 사상 계승의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둘째, 변월주는 비구축 중심의 불교정화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세속 인연, 태고 보우국사의 종조론과 범맥론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나왔다. 그는 대처측 노선에 참가하였으나,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셋째, 변월주는 비구축 중심의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강렬하였다. 그는 불교정화운동을 분규, 법란, 폭거 등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변월주는 그가 속한 불교 조계종, 태고종 내부의 자기 정화에 대한 의식은 투철하였다. 그도 불교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이런 입론에서 나온 것이 ‘새로운 불교론’이었다. 태고종지에 입각한 그의 주장은 도제양성, 중건승려 재교육, 계정혜의 삼학 수행 등을 강조한 대승사상, 보살사상이었다. 그는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새로운 불교의 노선으로 태고종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변월주의 새로운 불교론은 기존 대처측의 논리와는 차별성이 강한 이념이었다. 당시 대처측은 비구축에 대한 비판에 함몰된 나머지 불교정화는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의 이념, 정체성, 노선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변월주의 이념과 논리는 태고종의 좌표, 정체성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갖는다. 변월주와 동질적인 대상자는 梟峰 황성기

(1919~1979)이다. 그리고 건국대 교수를 하면서 태고종의 이념을 옹호한 이영무(1921~1999)도⁵¹⁾ 있었다. 최근 황성기를 조명하는 논고가 나왔지만 그의 불교개혁론에⁵²⁾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영무와 태고종의 관련성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태고종 종단 차원에서, 혹은 불교개혁론 관점에서 변월주, 황성기, 이영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상으로 변월주의 불교정화, 새로운 불교론, 태고종의 좌표 및 노선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미진한 측면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연구를 지속하겠거니와 이 방면 연구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51) 김광식, 「이영무」, 『불교평론』 65, 2016.

52) 그의 사상은 『韓國佛敎의 再建을 위한 우리의 主張 ; 韓國佛敎의 再建論』(불교사상연구회, 1966, 황금출판사)에 집약되어 있다. 그의 불교사상을 계승하는 사단법인 불교사상연구회가 수원 팔달산에 위치한 대승원(031-255-5018)에서 활동하였다. 황성기의 사상은 연암(비구니, 1983년 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 취임)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연암도 입적하였다. <경기신문> 2004.4.16, 「창건 50주년 맞는 대승원」 참조. 1961년에 불교사상연구회가 출범하였으며, 황성기와 권상로 등이 주체이었는데 2000년부터는 수산스님이 주지로 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문헌

- 김광식, 『백용성연구』, 동국대출판부, 2017.
- _____, 「華果院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 - 이선파와 변봉암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6, 대각사상연구원, 2017.
- _____, 「화과원의 역사와 성격」, 『대각사상』 28, 대각사상연구원, 2017.
- _____, 「불교재건위원회의 개요와 성격」,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불교 ‘淨化’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 _____, 「한국 현대불교와 정화운동」, 『대각사상』 7, 대각사상연구원, 2004.
- _____, 「가야총림의 설립과 운영」, 『조계종 총림의 역사와 문화』, 조계종출판사, 2009,
- _____, 「이영무」, 『불교평론』 65, 2016.
- 김순석,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활동」, 『대각사상』 26, 대각사상연구원, 2016.
- 마 성,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 대각사상연구원, 2014.
- _____, 「봉암의 태고종조론에 대하여」, 『대각사상』 26, 대각사상연구원, 2016.
- 변월주, 「우리 宗團의 反省의 해로」, 『불교계』 17호(1968.12).
- _____, 「内部 充實과 社會奉仕로」, 『불교』 5호(1970.10).
- _____, 「새해 첫 아침에 바라는 것」, 『불교』 8호(1971.1)
- _____, 「새로운 佛敎의 活路」, 『불교』 9호(1971.2).
- 장진영, 「황성기 : 한국불교 재건 염원한 대승사상 실천가」, 『불교평론』 68, 2016.
- 하춘생, 「황성기 : 보살행 없는 불교는 공리공론」, 『불교평론』 60, 2012.
-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대각사상』 26, 대각사상연구원, 2016.
- 불교사상연구회, 『韓國佛敎의 再建을 위한 우리의 主張 ; 韓國佛敎의 再建論』, 1966, 황금출판사.

Abstract

Byeon-Wolju of the Buddhist purification and Taego order

Kim, Kwang-sik
(professor in Dongguk)

This report is about Byeon-Wolju(변월주) of the Buddhist purification of the Mayor, the Buddhist monk of Baek-Yongseong(백용성), the modern high priest. So far,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moon has begun recently, and there are many fields to study about it. In this study, I summari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 of his Buddhist purification house. His argument, however, is related to the character and career of his native species. Therefore, his Buddhist purification pavilion and the position of Buddhist purification of the Taego order are many to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spects were noted. First, he was a disciple of Baek-Yongseong, and how he perceived Yongseong's purification idea. Second, what was the activity of the Maynyeol when the purification movement occurred. Third, it is how he perceived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that began when he was in Haeinsa Temple. Fourth, the Mayor insisted on the purification of Buddhism in the exotic Taego order to which he belonged. However,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his argument was accepted in the antichrist. Fifth, it can be considered a comparison with the Buddhist purgatory of Hwang-Sungki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who had a similar idea to that of Changwonju.

I hope that this review will become a stimulant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thought of the Alluvial period.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Buddhist purification of Buddhism and Buddhist reform of Taego order will be sparked. So I hope to start a new study on Buddhist purification.

Key words

Byeon-Wolju,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Baek-Yongseong, Haeinsa, Taego order, Hwang-Sungki